

중국, 자포니카 쌀시장의 성장과 경쟁력

중국에서 자포니카 쌀은 전통적으로 북부에서 재배 및 소비되고 인디카 쌀은 남부에서 재배되었다. 인디카 쌀은 총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자포니카 쌀은 29%였으며 나머지 11%는 찰쌀과 재래종이 차지하였다. (200년 기준)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양대 품종인 인디카와 자포니카 쌀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조리를 하면 자포니카 쌀은 물기가 많고, 끈기가 있다. 반면에 인디카 쌀은 조리하면 건조하고 엉기지 않으며 자포니카 쌀보다 길고 가늘다. 품종 간 대체성은 낮고 인디카 쌀이 주류를 이룬다.

자포니카 쌀 생산은 매년 5%씩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부지방의 자포니카 쌀 재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북부의 수자원이 이미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두 종류의 녹색 쌀이 있다. A 등급(화학성분 사용 감소)과 AA 등급(유기농)이 그것이다. 농업부에 '녹색식품센터'가 있어서 녹색식품의 생산과 가공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녹색식품으로 인증 받으면 가공업자는 포장에 녹색로고(태양, 물, 종자를 의미)를 부착할 수 있다.

현재 녹색 쌀은 중국의 전체 쌀 생산량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녹색식품 생산은 환경의식이 높은 일본, 한국, 대만의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을 조건이 될 것이다.

인도의 농산물 수급 현황

인도의 총 인구는 2002년 기준, 10억 5천만 명으

로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다.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쌀과 세계 2위의 밀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이다. 그러나 최근에 환금 작물 또는 상업적 작물재배면적 증가로 쌀, 조, 수수와 같은 곡물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도의 과일류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4,500만 톤 정도로 자급률이 100%에 이른다. 주요 생산류는 바나나로 평균 생산량이 전체 과일류 생산량의 36%를 차지하며 자급률은 100%이다. 채소류의 평균 자급률은 101% 수준이며, 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 토마토의 평균 생산량은 738만 톤이고 소비량은 737만 톤이다. 양파 생산량은 482만 톤이고 소비량은 437만 톤으로 자급률은 111%정도이다. 채소류 중 양파의 수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농업개항 및 농산물무역 추이

몽골의 전체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6배에 달한다. 이중 농업용지가 전체의 83.3%(2001년 기준)로서 우리나라의 농업용지 비율 약 20%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용지 중 약 99%가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고, 경작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재배면적이 제일 넓은 밀의 생산량이 180천 톤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류가 68천 톤, 채소류가 45천 톤, 목초가 14천 톤 등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의 한-몽교역은 1990년 몽골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간 농림수산물 교역량이 급

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수출액은 1991년에 비해 2003년, 무려 24배가량이 증대되었다. 2000년 이후 대몽골 수출액의 급신장이 뚜렷하다. 몽골로부터의 수입액은 1995년까지 증대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발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정부는 7~8월 두달 동안 농림어업관련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가 수요를 농산어촌으로 유도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산어촌 체험 및 고향방문을 활성화시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알찬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캠페인은 올 여름휴가 기간(7~8월)동안 지속적

으로 추진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면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옛 고향의 향수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농산어촌 체험·휴양정보제공 웹사이트 및 콜센터〉
도농교류센터(농업기반공사)

www.greentour.or.kr 1577-1417(중앙),
031-420-3558

농촌진흥청 www.go2vil.org, 031-299-2676

산림청 www.san.go.kr, 042-620-5500

해양수산부 www.seantour.com,

080-500-8579, 02-3674-6855

농협중앙회 gohyang.nonghyup.com,

02-2014-4662

한국관광농원협회 www.ktfarm.or.kr,

033-344-6248



2005 농촌지역개발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교육안내

농촌지역개발 사업주제별 특화과정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농림부 주최,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주관, 본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 2005년 8월 22일 ~ 2005년 9월 30일
- 교육대상 : 농촌체험마을육성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주민 및 지도자,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등)
- 교육비 : 각 모듈별 1인 50,000원
(모듈 3개 동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05년 8월 16일(화)
- 참가인원 : 각 모듈별 30명(총 90명)
- 장 소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진흥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 교육신청 및 문의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화 02) 794-7270,
팩스 02) 792-6972

이메일 kafa794@chol.com

홈페이지 www.kafarmer.or.kr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주최 : 농림부 / 주관 :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 시행(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모듈1. 친환경농촌개발 과정

- *목표 ○ 자연순환에 대한 이해
 -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방안
 - 친환경적인 농촌자원의 활용

- *내용 ○ 자연순환적, 내발적 지역개발 이론
 - 자연친화적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 지속가능한 마을 및 지역 가꾸기
- *기간 : 2005년 8월 22일~2005년 8월 24일
(2박 3일)

♣ 모듈2. 농촌관광전문가 과정

- *목표 ○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관광기법 습득
 - 전통문화 및 자연친화적 체험프로그램 개발
 - 고객감동을 위한 민박, 농촌관광해설 역량 개발
- *내용 ○ 한 차원 높은 농촌경영기법
 - 감동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민박운영
 - 지역자원의 발굴과 감동적인 해설
- *기간 : 2005년 9월 5일~2005년 9월 7일
(2박 3일)

♣ 모듈3. 향토자원의 개발 및 차별화과정

- *목표 ○ 향토자원 개발과 지역브랜드의 경쟁력 향상
 - 지역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및 지역차별화 전략
 - 향토요리발굴과 부가가치향상 능력 배양
- *내용 ○ 향토 자원발굴과 지역 브랜드 개발
 - 농산물의 가공, 이용,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 향토문화의 이해와 향토요리 개발 전략
- *기간 : 2005년 9월 28일~2005년 9월 30일
(2박 3일)